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조 선 로 동 당

제343호 [루계 제24391호] 주체102(2013)년 12월 9일(월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령 자 김정은동지 만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12월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도당위원회, 무 력기관의 해당 책임일군들이 방 청으로 참가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전체 인민들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 로 의탁하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고있다.

그런데 최근 당안에 배겨있던 우연분자, 이색분자들이 주체혁명 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당의 유일적령도를 거세하려들면 서 분파책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해나서 는 위험천만한 반당반혁명적종파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와 관련하여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장성택의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 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장성택이 감행한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 와 그 해독성, 반동성이 낱낱이 폭로되 버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하고 외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 였다.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당이 수령 감행하였다. 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력 주는 철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고 지반을 꾸리려고 획책하였다.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의 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과 혁명의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 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장성택일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 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 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 죄행위를 저질렀다.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 과 수령을 받드는척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 이몽, 양봉음위하는 종파 적행위를 일삼았다.

장성택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 여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위치에 등용되였지만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의리와 량심마저 줴

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하나의 사상, 하나의 령도중심에 기초한 외면하고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행위를 최고사령판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주요한 몫 되였다.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장성택은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장성택일당은 사법검찰, 인민보안기판에 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판들이 자기 역할 파행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주시해 사적사명을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은 근 자기 주위에 신념이 떨떨한자들, 아첨분자 대한 당적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제도보 을 할수 없게 만들었다. 70성상에 걸치는 우리 당의 력사가 보여 들을 끌어당기면서 당안에 분파를 형성하 위,정책보위,인민보위사업에 엄중한 해 독적후과를 끼치였다.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하여 처벌을 국압살공세에 투항하여 계급투쟁을 포 료,주체비날론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행동에 결정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동지의 받은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단 기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마비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적인 타격을 안기였다.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 위 간부대렬에 박아넣으면서 세력을 넓히 킬것을 노린 반혁명적, 반인민적범죄행 관철할수 없게 하였다.

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 주었다.

을 담당한 부문과 단위들을 걷어쥐고 내

장성택은 정치적야심으로부터 출발하여 \_ 이러한 행위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 는 매국행위를 함으로써 주체철과 주체비 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안에 새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당의 장성택은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내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고 부화타락한 의 리익,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는 그

장성택은 권력을 람용하여 부 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여러 녀성 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였으며 고급식당의 뒤골방들에서 술놀이 와 먹자판을 벌렸다.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 일해이된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병치료 를 가있는 기간에는 외화를 탕진 하며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였다.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 른 범죄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후 과는 대단히 크다.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년상도 치르지 못한 때에 장성택일당이 감행한 배은망덕한 범죄행위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 군장병들,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 을 자아내고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토론들 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장성택 일당이 감행한 반당반혁명적종파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당중앙 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 사옹위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 하였다.

회의에서는 장성택을 모든 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데 대한 장성택일당은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

오면서 여러차례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 국가재정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었지만 응하지 않고 도수를 넘었기때문에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어 장성택을 제거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의 원칙을 저 장성택은 자본주의생활양식에 물젖어 버리고 당의 령도에 도전하며 당과 국가 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추

> 한줌도 못되는 반당반 혁명종파분자들이 아무리 쏠라닥거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 으로 받들어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은 절대로 흔들어놓을수 없다.

현대판종파이며 우리 당대렬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들인 장성택일당 이 적발숙청됨으로써 우 리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 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일 심단결은 더욱 백배해지 게 되였으며 주체혁명위 업은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활력에 넘쳐 전진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아 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 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주체102(2013)년 12월 8일 평 양



#### 우 리 는 당신 밖에 모른다

의지적으로 힘있게 ( 🕽 = 114)

작사 차호근, 리지성 작곡 김운룡, 황진영



1. 이 조 선 이끄는힘억-세-다 인 민 의 운명을 한몸에안고



가 바라는 꿈과리-상 모- 두 다꽃펴주실 분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



- 2. 눈부신 그 리상이 우리 목표다 3. 하늘땅 바뀐대도 역풍 분대도 령장의 결심은 인민의 승리 그이가 가리킨 오직 한길로 천만이 폭풍쳐간다 (후렴)
- 우리의 심장엔 당신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령도만 받들어가리 (후렴)



# 정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 번 영 기 를 열 어 나 가 자

참 가 자 들 에 군대강습 보 체 1 0 2 ( 2 0 1 3 ) 년

당의 령도밑에 건설에서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올해 의 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의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건설부문일군대강

습이 열린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입니다.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래일》이라는 주제밑에 진행되는 이번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은 건설부 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혁명과 시 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

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발기에 따라 마련되였습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 어선 오늘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년대와 년대를 뛰여 넘어 하루빨리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 여야 할 중대한 시대적과제가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년대를 펼쳐나 가는데서 건설부문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있습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뗘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 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 이 일뗘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 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 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 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 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대 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 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 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 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 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모든 강습참가자들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조직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강습을 통하여 우리 당이 구상 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설계도가 어떤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것 을 똑바로 인식함으로써 이번 대강습이 건설부문에서 다시한번 크게 도약하는 전환적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건설력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건축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리마에 속 도전을 가한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기적과 전변을 이룩하여온 자랑찬 력사입니다.

해방후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의 새 력사를 펼치 시고 빈터우에 위력한 자립경제의 나라, 행복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주체의 건축대강 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일대 앙양 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건설렁도업적 은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재보로 길이 빛날것입니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 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정과 영웅적투쟁에 의 하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렁영생의 대기념비로 더욱 숭엄하게 꾸려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 장을 비롯하여 품격과 내용, 건축형식에 있어서 사회주 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련이어 일떠서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행복한 삶의 희 열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 낌없이 바쳐 조선은 한다면 기어이 한다는것을 실천으 로 보여주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슬기와 기 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 들은 선군시대의 영웅들이고 우리 당의 보배들입니다.

나는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불타는 애 국의 열정과 무비의 헌신성으로 건설의 최전성기를 안 아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과 군인건설자들, 전 국의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건설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가 까운 기간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 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앞장에서 열어나 가야 할 중대하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 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활 성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으로 높여야 합니다. 수도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 며 지방들에서도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 도, 시, 군들 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파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적극적 으로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 준에서 훌륭히 건설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앞에 나선 목표는 매우 방대하고 아름찹니 다. 그러나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에 끝없이 충실 한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있기에 부강하고 문 명한 사회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일뗘세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리상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 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앞에 나선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를 훌륭히 실현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리론, 건설정책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 주의건축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 중입니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 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 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 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 떠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핵입니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이것이 오늘 건설부문 일군 들과 근로자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에서 혁명적전 환을 일으켜 나라의 건설사업전반을 세계적높이에 올 려세워야 합니다.

설계, 시공, 건재는 건설의 3대요소입니다. 건설부문 에서 훌륭한 건축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비결은 업소들에서 기술력량을 보강하고 건설기능공들을 양성 설계와 시공, 건재의 3대요소를 옳게 결합시키는데 있 습니다.

설계와 시공, 건재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내 세우고있는 정책적요구는 건설에서 선편리성, 후미학성과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전문화 와 공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섬멸전, 립 체전을 벌려 대상건설을 단숨에 해제끼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건축설계는 건설의 선행공정이며 작전도입니다. 설계 가들은 설계탁에서 문명국의 래일이 그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최 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에서 당의 주체적건축리론과 건설정책의 요 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도 그것을 리 용하게 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고 안정되고 보건위생적이며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판심을 돌려야 하며 건 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건 축물을 설계하는데서 하부구조설계를 선행시키는것을 철칙으로 내세우며 세계적추세에 맞게 하부구조망을 현대화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하는데서 대상의 용도에 맞고 특색이 잘 살아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건축은 종합적인 예술인것만큼 건축설계에서 류사 성과 반복은 금물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설계일군들은 건축물들을 대상별특성과 용도, 수용능 력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건설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궁리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가 외부형성과 내부공간형성에서 집중적으 로 나타나는것만큼 건축물의 외부형성과 내부평면조직 설계를 대상의 사명과 기능에 맞게 잘하여야 합니다. 지방건축설계에서는 무턱대고 평양시건물들을 본따거 나 멋따기하는 편향을 없애고 해당 지방의 얼굴이 나 타나도록 다양하고 독특하게 하여야 합니다. 록색건축 에로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 들을 생태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과 친숙하게 하는 원칙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 한편 설계를 특색있게 한 다고 하면서 우리 식이 아닌 건축양식과 풍조를 끌어 들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

설계방법을 과학화하고 설계수단을 현대화하여야 합 니다. 설계가들이 책임성과 의무감만 가지고서는 세계 적수준의 건축물을 원만히 설계할수 없습니다. 종이장

에 설계도면을 그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시 🛾 함께 건설장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 건축설계방법을 파학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는 최첨단수준의 설계응용프로그람과 체계를 우리 식 으로 연구개발하고 활용하는것입니다. 중앙건설설계기 판들과 지방의 건설설계단위들에서는 최신형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설계수단들과 다차원설계프로그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설계의 파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계작성에서 경제적타산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특별 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설계일군들이 점 하나를 잘 못 찍고 선 하나를 잘못 그으면 나라의 숱한 자재와 자 금, 로력이 랑비되게 됩니다. 설계가들은 자기가 설계 한 건축물에 대하여 나라와 인민앞에 책임지는 립장에 서 먼저 설계형성안부터 경제적효과성을 잘 타산하여 만들어야 하며 하나하나의 대상을 깊이 따져보고 또 따 져보며 심중하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부문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포부 를 안고 설계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년간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많이 일뗘세우는 과정에 설계일군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설계수준이 높아졌지만 당과 인민의 요구, 세계건축발전추세에 비추어볼 때 아 직 뒤떨어진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면하여 내부장식 설계, 가구설계, 원림록화설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건 축설계에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받아들여 인류가 지향하는 록색건축, 지능건축을 창조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시공은 건설의 기본공정입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하 여도 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과 인민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건축물을 일뗘세울수 없습니다.

시공을 전문화하여야 합니다. 시공을 전문화하는것은 시공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중앙건설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기 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부족되는 로력을 보충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들에서도 자체의 건 설력량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전문건설기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올해 건설경험을 살려 지방의 건설력량들을 평양시 중요대 상건설에 참가시키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앞선 건설공법 을 배우고 경험을 쌓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굣을 곳업화, 현대화하여야 건설부문에서 일을 헐 하게 하면서도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에서 기본은 건설설비와 기공 구의 현대화입니다. 당에서 건설의 포성을 울린데 따라 앞으로 건설을 많이 해제껴야 하는것만큼 건설설비들 과 기공구들을 현대적인것으로 일신하여야 합니다. 우 리에게 여러가지 건설설비들을 만들어본 경험도 있고 되여야 합니다. 튼튼한 공업토대가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현대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생산보장할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 과 건설단위들에서는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현대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다른 나라에서 일식으로 들여 오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 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미적요구가 높아지고 건설공법도 발전합니다.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 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 쟁을 벌리며 최신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 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건설을 높은 단계에로 발 전시켜나가자면 습식공법으로부터 건식공법으로 전환 하여야 합니다.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 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장마다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 을 보증하자는 구호가 새겨져있는데 이 구호가 단순한 선동구호가 아니라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는 충정과 애국의 구호가 되 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깨끗한 량심과 실천의 구호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물시공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단위가 따라서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시공에서 표준, 시범이 될수 있는 단위들을 중앙과 도들에 꾸리고 모 든 건설단위들이 따라배우게 하여 전반적인 시공수준 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상건설을 하면서 건설장주변정리를 잘하는데 깊은 판 심을 돌려야 합니다. 대상건설을 하면서 지대정리를 따라 세우고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완공과

건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건재생산은 건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건설에서 건 재는 군대에 비유하면 총포탄과 같습니다.

건재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에 필요한 건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세멘트공장들과 건 설용강재를 생산하는 단위들에서 현존생산공정을 개건 완비하고 설비를 만부하로 돌려 질좋은 세멘트와 강재 를 품종별, 규격별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골재와 부 재생산을 공업화하여 규격골재와 부재생산을 빨리 늘 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현 대적인 건재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꾸려야 합니다.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건재를 국 산화하는것은 건설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인 동 시에 사람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파 긍지를 안겨 주고 신심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됩니 다. 대동강타일공장과 평양건재공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 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건재품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문화, 전통화하여야 합니 다. 마감건재공장들에서 건재품의 질을 높이고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마감건재를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구재료와 가구재료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경 량화되고 견고하며 쓰기 편리하고 보기도 좋은 건구와 가구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질좋은 외장재를 생산하기 위 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강성부흥 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는 척후대, 개척자들입니다. 우리 당은 건 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애국적 열의에 의거하여 인민의 리상과 꿈을 꽃피우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건설부문 일군들은 당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실현하 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 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 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 제를 대상별로, 단계별로 불이 번쩍나게 해제껴야 합니 다. 일군들은 대중의 창발적의견을 많이 듣고 설계와 시공으로부터 운영준비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 는 문제들을 건설현장에서 진지하게 협의하여 제때에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이 자력 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 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건설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일군들은 건설사업에서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 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 다. 일군들은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이쯤하면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요구성을 높여 모든 건설대상을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수준, 세계적높이에 이른 기념비 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뗘세워야 합니다.

일군들은 건설작업에서 건설자들의 생명안전에 특별 히 깊은 관심을 돌리고 로동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사소한 로동재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 일군들은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건설부문 일군들에게 있어서 정치실무수준문제는 단순 히 사업수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과 발걸음을 맞 추어나갈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일군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 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분야, 자기 단 위의 사업에 정통하며 건축발전추세에도 밝은 건설박 사, 건설만능가가 되여야 합니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대상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 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천지 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는 성스 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 로써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근로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대상 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열렬한 애국의 인생판을 지니고 오늘의 벅찬 대건설전투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야 합니다.

> 4 변 으 로 계속

#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지

3 면 에 서 계 속

건설과학기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건설을 끊임없는 발전에로 떠미는 추동 력이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은 과학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건설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어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민족적자존심과 과학적신념을 지니고 당의 품속에서 배운 지식과 재능을 총발동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건설투쟁을 과학기술로 담보하고 뗘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세계적으로 앞선 건설구조도식과 과학적인계산방법, 현대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연구에 힘을 넣어건설설계와 시공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건재의국산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고 다양한 건재를 더 많이 연구개발하며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도입하도록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합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부르고있습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주체적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전초기지입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건설부문교육기관들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고 리론과 실천, 교육

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며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주체적건축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실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건설부문의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자면 전망성있는 대상 들을 선발하여 다른 나라에 류학과 실습도 보내야 하 며 현직일군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조 직하여야 합니다.

건설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리고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중앙자료기지에 넣고 콤퓨터망을 통하여 해당 기관들 에서 전자열람봉사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건설감독통제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감독통제사업을 당적, 국가적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설감독통제기관 일군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지켜선 감독일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건설감독사업을 엄격하게하며 설계와 시공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야합니다.

국가의 통일적인 건설감독통제체계를 철저히 세워야합니다. 통일적인 건설감독통제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나라의 전반적건설을 당의 건설정책과 국가의 건설발전방향, 건설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갈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문에 국가의 통일적감독통제체계가제대로 서있지 못합니다. 건설감독통제부문에서는 모든건설대상들에 대하여 국가건설감독일군들이 건설현장

에서 설계심의와 준공검사를 진행하는 질서를 세우며 건설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감독통제하여야 합니다. 건설감독통제기관들에서는 건설물의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운영준비까지 검토하는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건설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건설부문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떠나서는 건설에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을 옳게 구현할수 없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갈수 없습니다.

건설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건설정책과 방침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당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결사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원동력은 대중의 정신력입니다. 당조직들은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애국적 열정과 지성을 다 바쳐 맡겨진 건설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 천리마의 기상,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

온 전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을 따라배워 모두가 오늘의 대건설전투에서 위훈의 창조자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일대 사상전을 벌리고 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건설장마다에 비약의 열풍, 결사관철의기상이 나래치고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뿌리뽑기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오래동안 집을 떠나 어렵고 힘든 건설작 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혁명전우, 동지로 귀중히 여기고 자애깊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뜻 이 보살펴주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 고 건설장마다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 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 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건설부문 일군 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 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 나가야 합니다.

# 건 설 부 문 일 군 대 강 습 시 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강습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21세 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력사적인 시기에 건설부문일군대강 습이 평양에서 시작되였다.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래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강습은 건설분야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주체건축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세상을 놀래우는 건축의 본보기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데 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 강 습 에 서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당의 독창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취급하게

대강습에는 전국의 건축설계, 시 공, 건재, 감독부문 일군들, 건설부문 과 련관된 무력기관, 내각, 성, 중앙 기관, 과학기술, 대학부문과 지방의 당, 행정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8일 평양 체육판에서 개강되였다.

대강습장은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사상과 리론으로 튼튼 히 무장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강성국가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 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열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주석단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 히 모셔져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 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건설부문일군대 강습》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으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모형들 이 세워져있었다.

대강습장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 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 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려려보게 하라!》,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세계적인 건축물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건설부문에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건설의불바람을 일으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자!》,《건설의 최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자!》,《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자!》라는 구호들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도 당책임비서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들,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군대 와 사회의 건설부문 일군들, 중요대 상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영웅들, 공 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곽범기동지가 개강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국청 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진행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강습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건축분야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 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건설 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일대 번영 기를 열어나가는 획기적인 리정표로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대강습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기본건설정책의 정당성,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건설부문 모든 단위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건설에서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건설부문일군대강습 개강을 선언하였다.

《김 일 성 장 군 의 노 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부 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 신 력사적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 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를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건설부문에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퍼올려 다시한번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떨치며 건 축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대비약, 대혁 신을 일으킴으로써 건설의 대번영기 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받 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격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강습에서는 건설부문 사업총화회의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 자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거창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마련해주시고 강습의 명칭으로부터 주제,내용과형식,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대강습기간에 건설부문 사업총화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대강습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보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올해 건설사업에서 이 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건설 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게 된다고 그 는 강조하였다.

그는 건설부문 사업총화회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사에 특기할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축가, 건설자들의 대회합이며 당의 령도밑에 《마식령속도》 창조로 새로운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환적계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로부터 시작 된 우리 나라 건설력사는 당과 수령 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당시대의 기 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선 거 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기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는 건축창조 사업이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며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영예로운 사업인 동시에 민족의 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기본건설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립체계화하신 건축사상과 리론은 건축창조사업에 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 에 전면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건축총서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일관 된 인민대중중심의 건축학설이다.

주체건축창조의 강령적지침을 마련 하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나라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수많은 건설장들을 끝없이 찾고찾으시며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모든것을 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해방후의 빈터와 벽돌 한장성한것이 없었던 전후의 폐허우에서우리 조국을 세인이 경란하는 천리마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되게 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끌없이 번영하는 강 성국가로 일떠세우실 굳은 의지를 지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 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애국헌신 의 자욱자욱을 새기시며 거창한 대 건설전투를 진두지휘하시였다.

회세의 천출위인들의 부강조국건 설구상과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 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태양의 성지로 꾸려주시고 평양시와 전국각지에 백두산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신 대상건설들이 최상의 수준 에서 완공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주체건축사에 특기할 해 로 조국청사에 긍지높이 아로새겨주 시였다.

65돐, 전승 6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 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정해주시고 정초부터 정력적인 령도로 건설부문 사업을 진두지휘하시였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공화국창건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하게 꾸리며 모든 도, 시, 군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선 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헌신의 자욱은 끝이 없다.

고은 밤, 이른새벽, 눈비내리는 궂은날에도 건설장들을 찾으시며 구체적인 건설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천출위인의 불면불휴의 령도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력사적인호소문은 온 나라에 건설의 불바람이 타번지게 한 힘있는 진격의 나팔소리였고 조국건설의 최전성기가펼쳐지게 한 기적의 원천이였다.

글저지에 한 기국의 현년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올해 건설부문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새로운 공격속도인 《마식령속도》가 창조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마식령 스키장건설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으며 불과 7개월사이에 현대적이며 특색 있는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며세웠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조국해방

단눔에의 공격정신으로 조국해당 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 렬사묘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 축물로 완공하여 전승 60돐을 빛나 게 장식하였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수도 평양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위한 희한한 살림집들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고 평양체육판이 훌륭히 개건보수되었다.

제국단에 불통이 개인모구되었다. 전국의 많은 도시와 마을이 사회주 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꾸려졌다. 평양시의 곳곳에 근로자들이 리용

평양시의 굣굣에 근로자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고 문화적인 공원과 유원지들이 훌륭하게 꾸려지고 새로운 휴식터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합장 강과 보통강정리, 거리의 록화, 새품종의 잔디밭조성 등이 힘있게 벌어져 수도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수도를 본보기로 하여 회령시와 만포시, 청성군, 연란군을 비롯한 각 지에서 거리와 마을들을 지방의 특 성에 맞게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차 게 벌어져 전국도처에 사회주의선경

이 펼쳐졌다. 대기념비적건축물을 일뗘세우는

나날에 주체건축의 본보기, 표준이 창조되고 건설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

우리의 건축가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드림없이 실현하는것을 건축 창조의 근본원천으로 삼고 설계를 하나 하여도 건물의 성격과 사명, 용 도에 맞으면서도 특색있게 하고있으 며 시대의 기상이 맥박치고 인민의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조각과 장 식, 벽화들을 적극 받아들여 설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건설자들은 시공에서 설계의 요구 와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고 건축 물들을 최상의 수준으로 일떠세웠다. 올해에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과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 원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은 세 인을 경란시키는 건축의 표본, 본보

기로 되고있다. 올해의 거창한 건설투쟁을 통하여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축가, 건설자들 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과학이고 진리이며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대비약, 대혁신의 비결이 있고 주체건축의 영원한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기게 되였다.

보고자는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 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 시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령도업적은 강성국가건설사 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 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체의 건축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 여 사회주의건축, 인민적인 건축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위대 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절세위인들 의 뜻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건설부분 일군들과 근로 자들앞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건설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 시켜 가까운 기간에 사회주의경 제강국의 튼튼한 기를을 마련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분명개화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할 중대 하고 영예로운 입무가 나서고있습니다.》

보 교 자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부문일군대강 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주체건 축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 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 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 에서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 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라 고 강조하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축가, 건설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고 《마식령속도》창조투쟁을 힘차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중요대상건

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광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건설한 경공업공장들과 축산, 양어, 수산, 과일생산기지들을 새세기에 맞게 개건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같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며 그를 본보기로 하여 지방도시들을 해당 지

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축가, 건설자 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 하자!》는 구호를 들고 모든 건축물 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계로 임띠세움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건설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지시, 당의 기본건 설정책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를 무조건 집행하는 기풍을 철저

히 세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하나의 대상을 건 설해도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 제,세계에서 당당히 첫손가락에 꼽 히울수 있게 설계하고 일뗘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립장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식대로 발전시켜 우리의것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건축, 건재부문의 과학자들은 설계 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우리의 풍 부한 원료에 의한 건재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 하여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언 급하였다.

건설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령도 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실력가, 실천가형의 일군이 되여 높은 책임감 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 지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건설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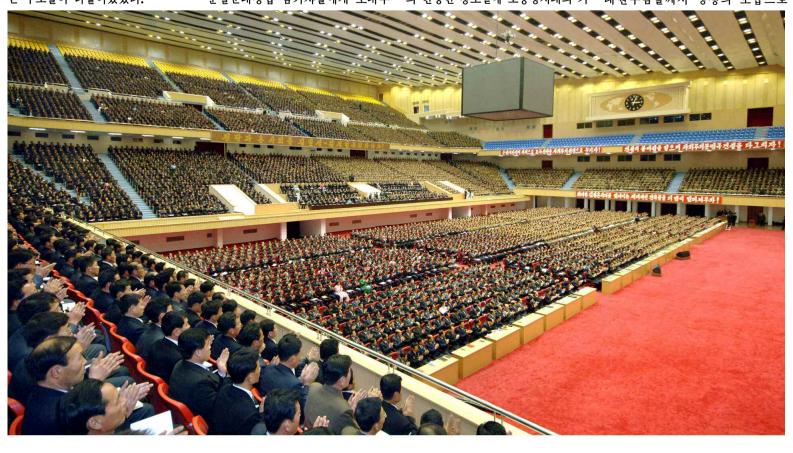
인민군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 하며 군대와 인민이 합심하여 온 나라의 도시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를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건설감독부문 일군들은 감독사업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건축부문의 교육기관들에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교수내용과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세계적인 건축가, 건설기술자들을 더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 자는 모두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 어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은 계속된다.



#### 민족의 존업을 떨쳐주신 위대한 선군령장

두해가 되여온다. 민족의 어버이와 떨 어져 살수 없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이 뿌린 뜨거운 피눈물에 폭설마저 녹아버 리던 그때가 어제런듯 하많은 추억을 불 러일으키는 1 2월이다. 이전에는 우리 미처 다 몰랐던 만단사연들,위대한 장군님께서 견인불발의 의지로 넘고 헤 치신 선군장정의 험난한 굽이굽이마다 에 어린 그이의 한생의 로고가 뜨거운 눈물속에 되새겨진다.

자신을 위해서는 순간의 휴식마저 허 용하지 않으시며 인민의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고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 겨주기 위해서라면 천만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던 어버이장군님, 그이의 불같은 한평생을 떠나 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 민족의 오늘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조국통일위업 은 단순히 령토와 인구의 재결합이 아니 라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적존엄과 관련 되는 최대의 애국사업이였다. 이 땅우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조선민족을 더 높이 안아올려 세계가 부러워 우러러보 게 하리라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 동한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였기에 나라의 통일문제때문 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신적이 없었으 며 한생토록 야전복을 벗지 못하시고 누 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가시덤불길 을 진두에서 헤쳐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는 북과 남.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자 주의식과 자존심, 민족적긍지와 영예 갑을 높여주며 민족의 통일과 륭성번 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민족 적기치로 되고있습니다.》

주체 7 5 (1 9 8 6 )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민족 의 존엄과 조국통일과 관련한 참으로 귀 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적자존심은 어느 민

일수록 더욱 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 족적자존심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의 고 유한 민족성을 유지할수 없으며 다른 민 족에게 예속될수 있다고 준절히 이르시 였다. 그러시면서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야 한다 고,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승공통일》을 하겠다고 하 는데 이것은 전체 조선민족을 제국주의 자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배족적행 위이라고, 민족내부문제에 외세가 간섭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으 며 우리 민족은 자기 문제를 자체의 힘 으로 해결할수 있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 족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의 찌렁찌렁하신 그 음성은 오늘도 메아

족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작은 민족

무릇 민족의 자존심이나 존엄은 그 민 족을 이끄는 정치가의 담력과 배짱에 달 려있다고 하였다. 아무리 오랜 력사와 문 화전통을 가진 민족이라 하더라도 령도자 의 정치적대가 약하면 자주권이 롱락당하 게 되며 민족적존엄도 빛을 잃기마련이 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있고 나 라마다 지도자가 있다지만 큰 나라의 눈 치만 보며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하면서도 제 할 소리도 못 하는 례가 적지 않다. 침략과 략탈을 업으 로 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눌리워 자기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한 나라들의

리치며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운명은 또 얼마나 비참하였던가. 민족이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의 운명 을 옳바로 개척해나가자면 그것을 이끌 어줄 위인을 잘 만나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겨레에게 는 한없이 겸허하고 인자하신 어버이이시 였지만 침략적인 외세가 민족의 자주권 과 존엄을 넘보며 조금이라도 건드리려 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선군의 총대로 단호히 맞받아쳐갈기시 는 드센 배짱가, 장군중의 장군이시였 다. 그이의 헌신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 략전쟁위협으로부터 두번다시 구원되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마 런되였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 8 5 (1 9 9 6)년 1 1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 적인 판문점시찰을 진행하신 이날은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사 명감을 깊이 심어주고 승리의 신심과 용 기를 북돋아준 뜻깊은 날이였다.

-망국노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주적인 민,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사전에 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떻게 수호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철리가 담겨진 이 말씀도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초소군인들에게 남기 신것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 문점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세계전 쟁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력사적 인 장소이면서도 민족의 분렬을 상징하 는 곳이라고, 자신께서는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 려는 념원에서 해마다 해내외의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이 모여 통일행사를 벌리 는 이곳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 의 통일친필비를 세우게 하였다고 뜨겁 게 말씀하시였다.

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군의 총대로 민족의 존엄과 운 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겨레의 숙원인 조 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려는 철의 신념이 비낀 력사의 장엄한 선언이였다.

그이의 강인담대한 기상앞에 제국주 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광풍과 반통일도 전은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셔졌으며 절세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 의 존엄과 긍지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 게 되였다. 세계에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제왕처럼 날치던 제국주의우 두머리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항복 서한까지 받아내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보면서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 에 굳게 뭉치면 조국의 자주통일위업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 커다란 신심을 가 다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절 불굴의 의지로 헤치신 애국애족의 선군 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 민족자주와 대단합의 6.15통일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평양에 찾 아온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뜻깊은 자리에 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둘째가 군력이라 고 하시면서 군력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 계를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세에 롱락당한 한세기 전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데 대 해 일깨워주시였다.

그이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은 온 겨 레는 조국의 산발과 고지들마다에 새겨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선군장정 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 고 통일된 하나의 강토와 후손만대번영 을 마련해주기 위한 애국애족의 길이라 는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진정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 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헌신의 로고속에 우 리 겨레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계에 서 가장 으뜸가는 민족으로 내세우시려 고 그토록 마음쓰신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오늘 그이께서 바라시던 조국통일 위업은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거니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은 반드시 선군태양이 비치는 이 하늘아래서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의 새 아침을 맞이할것이며 조국 과 민족을 위해 쌓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

현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하였다.

본사기자 박철준

집권자가 선거부정행위에 대

한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종북》

소동의 중지,민생문제의 해결

이날 선언문발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당국이 사회의 분렬과

갈등을 조장하고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것

을 보고 시국선언운동에 나서게

등을 집권자에게 요구하였다.

## 《조선통일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영국단체 인터네트에

령 도 자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시찰하신 17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 연구협회가 11월 24일 인터네 트홈페지에 《조선통일사에 특 기할 력사적사변》이라는 제목

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판문점은 가장 첨예한 곳

초긴장이 흐르는 이곳에서는 어느 시각에 충돌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이런 위험한 곳에 김정일각하께서 나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천만대

적앞에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적들을 쥐락펴락하시 는 령장이시다.

백두의 기상과 담력, 뜨거운 조국애와 강의한 통일의지를 지 니신 희세의 선군령장의 판문점 시찰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 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민족사적쾌거였다.

판 문 점 을 찾 으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김 일 성 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의지를 결연히 다지시였다.

그것은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 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나라

화들이 진정된 소식을 실었다.

의 분렬과 민족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세력에게는 철추를 내린 백두령장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선언이였다.

글은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 인 판문점시찰이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 킨데 대하여 렬거하고 력사의 땅 판문점에 새기신 백두령장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남녘겨 레의 뜨거운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계시여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 으로 이어지고있다고 강조하

였다.

#### 《백두-한나》 11월호 발행 잡지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잡지 《백두-한나》 11월호를 발행 하였다.

잡 지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 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평양 에서 성대히 진행된데 대해 집 중편집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3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

글 《장군님과 CNC(14)》 시 《휘날려라 공화국기발이 여》, 글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리를 지켜 (1) 〈조국땅이 아 니라 중국동북땅으로〉》. 《조 국의 품은 언제나 따스합니 다》. 《영원한 전승의 나 라》, 《고마운 조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위훈은 조중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하리》, 《중조우의는 만대에 푸르리》 가 게재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은 인간쓰

레기들을 내세워 벌리는 반공화 국모략망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정세를 격화 시키는 미국의 군사적대결책동 은 비싼 대가를 치를것이다》라 는 제목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들, 산하조직들에서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책동을 단죄한 소식들을 편집하였다.

잡지는 남조선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 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한 조국평 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를 비 롯한 조국소식들과 국제소식들 을 소개하였다.

#### 공무원로 투쟁에

남조선의 진보련대,참여련 대를 비롯한 150여개 시민사 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로 조 공안탄압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 동대책위원회》(공무원공안탄 압대책위원회)결성을 위한 기 자회견이 4일 서울에서 진행

공무원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박근혜패당의 공무원로조에 대 한 탄압은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처한 위기국면을 적당히 넘기려는 속임수이며 로 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폭거

라고 규탄하였다. 단체는 앞으로 박근혜 《정 권》의 불법선거에 따른 공안탄 압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공직사 회의 개혁과 민주수호, 공무원 로조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발언들이 있 었다. 민주로총 위원장 신승철은 공

무원로조가 결성되여 10년이 넘는동안 많은 로동자들이 해고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부정 과 부패를 청산하고 옳바른 공 직사회를 열망하여 투쟁을 벌려 왔다고 말하였다.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공동대표 박석운은 공무원로조 에 대한 탄압은 《정권》이 국 면전환을 위해 급급하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비난하 였다.

예수살기 상임대표 조헌정목 사는 종교인들이 박근혜의 퇴진 요구와 함께 공무원로조탄압분

쇄를 위한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참여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

용은 박근혜가 검찰총장에게 《사회적합의를 잘 지키는것이 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 칙》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인 데 대해 언급하고 그러나 집권 자자신이 선거당시 공약들과 사 회적합의들을 지키지 않고있다 고 단죄하였다.

전국농민회총련맹 사무총장 위두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이라고 하면 무작 정 《종북》으로 몰려 탄압당 하고있다고 하면서 농민들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투 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교과서수정놀음

얼마전 괴뢰교육부가 당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고등학교력사교과서들의 내용을 무조건 수정할 것을 여러 출판사들에 강박하여 물의를 일으키 고있다. 괴뢰패당이 수정을 지시한 내용들이란 우리 공화국의 토지개혁을 헐뜯고 주체사상과 사 회주의경제를 비방하며 지난 조선전쟁의 력사적 사실과 《천안》호사건의 내막을 외곡날조하는 등 모두가 동족대결을 선동하는것들이다. 민족분 렬을 합리화하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정당화하는 범죄적내용들도 들어있다. 남조선의 고등학교학생들에게 동족을 터무니없이 비방중 상하고 진실을 완전히 외곡한 불순한 력사교과 서를 쥐여주려는것이 괴뢰패당의 술책이다. 이것 은 력사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불어넣고 사회를 더욱 파쑈화, 반동화하려는 범죄적망동이다.

《6.25전쟁은 북이 일으켰다.》느니, 《〈천안〉 호사건의 장본인은 북》이라느니, 그 누구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느니 하는따 위의 새빨간 거짓말로 엮어진 교과서들로 교육 받은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되게 인식하며 자라난 그 들이 어떻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애국 위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겠는가. 그야말로 상상 만 해도 소스라칠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새 세대들을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무작정 부 정하고 적대시하는 눈뜬 소경으로, 얼간이들로 만드는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라는데 괴뢰들의 력사교과서수정놀음의 엄중성이 있 는것이다.

새 세대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고 조국 통일의 절박성을 깨우쳐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분렬의 비극속에 커가는 그들마저 정신적기형아 로, 동족대결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날뛸수 있단 말인가. 현실은 괴뢰들에게 민족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꼬물만큼도 없으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로지 북낚대결과 북침야망의 실현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보다 심각한것은 괴뢰들의 력사교과서개악책 동이 단순히 교과서문제에 국한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신》 독재의 후예들이 집권한 남조선 에서는 지금 사회의 보수화, 반동화, 파쑈화가 절 정에 달하고있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으로 극도 의 궁지에 몰린 괴뢰보수패당은 《유신》독재의 부활에서 살길을 찾으면서 파쑈독재체제를 강화 하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에 피눈이 되 여 날뛰고있다.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자주민 보》에 대한 탄압책동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 러한 속에 괴뢰교육부가 력사교과서들을 더욱 반 동적인것으로 개악하려는것은 파쑈폭압과 북남 대결로 악명떨친 《유신》독재를 전면적으로 되 살려 최악의 위기에서 헤여나보려는 괴뢰보수패 당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 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력사교육까지 《유신》 독재부활과 돗족대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남조선의 험악한 현실은 절 대로 묵과할수 없다. 현 사태를 스쳐지난다면 조선사회의 민주화실현은 더욱 어렵게 되고 민 족의 화해와 단합에도 커다란 부정적후과가 미 치게 될것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국통일을 간절히 념원하는 남조선인민 들이 한줌도 못되는 반역패당때문에 앉아서 화 를 당할수는 없다.

력사의 진실을 악랄하게 외곡하면서 신성한 교 육마당까지 동족대결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괴 뢰들의 망동에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반기를 들고나선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정의와 진보, 민 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역패당 의 불순한 력사교과서개악놀음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할것이다.

#### 사태를 방불케 하고있다고 지적 되였다고 밝혔다. 최근 부정선거를 진보세력말살책 재촉하는 단죄규탄하는 남조 고 정보원의 탄압망동을 강력히

되였다.

선 각계층의 대중 적투쟁이 고조되는데 겁을 먹은 괴뢰패당이 파쑈독재의 칼날을 사납게 휘두르고있다. 통합진보 당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 한 탄압말살책동이 날로 더욱 포악해지고있는것은

실례이다.

남조선의 한신대학교 신학대

학 대학원생들과 학생들이 4일

서울에서 괴뢰집권자를 규탄하

선언문은 박근혜《정부》가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

로막고 관련제도개혁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갈등을 조장하고있는 오늘의 시

국은 《유신정권》시기의 폭압

당국이 《종북》 몰이로 리념

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미전부터 통합진보당이 저 들의 강제해산책동에 맞서 투쟁 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괴뢰패당은 얼마전 법무부를 내세워 《반대 투쟁자체가 정당해산의 리유》 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헌 법재판소》에 의견으로 제출하 게 하였다. 괴뢰법무부패거리들 은 통합진보당 성원들이 정당해 산심판청구를 반대하여 투쟁을 벌린것이 《종북세력으로 구성 되여있다는것을 반증》해준다 느니, 《필사적발악》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 을 합리화해나섰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즉시 《유신》 독재시기에도 없었던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폭거를 저지르고 그에 항거한다고 하여 그것을 다시 정당해산의 명분으 로 삼는것이야말로 독재의 극치 라고 강력히 단죄하였다. 이 당 대변인은 법무부가 제출한 문서 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략 이라고 하면서 이로써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반드시 철회되여야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

찰총장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놀

음을 벌려놓아 민심의 분노를

고 주장하였다. 통합진보당을 완전히 말살하 려는 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은 이 에만 그치지 않고있다.지난

통합진보당의 리석기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상정 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다. 민주당 이 리석기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 직 끝나지 않은것만큼 제명안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를 거부하자 《새누리당》은 민 주당이 통합진보당과 리석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만

들려 한다고 걸고들었다. 괴뢰보수패당이 내란음모사 건에 대한 재판도 마무리되기 전에 리석기의 《국회》의원제 명을 시도하는데는 어떻게 하나 통합진보당을 《리적단체》, 《종북세력》으로 몰아 짓뭉개 고 그 탄압의 마수를 진보민주 세력에게로 확대함으로써 반 《정부》기운을 눅잦히려는 술

책이 깔려있다. 벌써 그러한 움 직임들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11월 26일 괴뢰정보 원은 어느 한 진보예술단체가 《북의 공작원과 직접 혹은 간 접적으로 접촉한 혐의》가 있다 고 떠들면서 《보안법》을 휘둘 러 탄압을 가하였다. 정보원깡 패들은 이날 아침 진보련대 문 예위원장을 비롯한 이 단체의 성원들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

민심에

고 고아대며 그들의 사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놀음을 벌려 놓고 마구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각계에서 이에 대 1 1월 2 8일 《새누리당》 패들 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정보원패거리들은 원과 어디에서 어떻게 접촉》하 였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련계된 혐의》는 있다는 말같 지도 않은 수작을 늘어놓았다.

문제의 단체로 말하면 지난 1999년에 조직되여 합법적 인 활동을 하였고 우리와의 모 든 행사들은 괴뢰통일부의 허가 밑에 진행하였다. 하다면 지난 1 0여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하여온 이 단체가 어떻게 이제 와서 갑자기 탄압의 대상 으로 되였는가 하는것이다.이 것은 괴뢰들이 통합진보당을 비 롯한 진보민주세력을 탄압말살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별의별 구실을 다 만들 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현재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공작원, 접선, 지령》따위의 말은 들어본적도 없다고 하면서 정보원이 내든 자료들을 전부 부인해나서고있다. 한편 남조선 의 진보련대와 예술단체들은 이 번 사건이 전형적인 조작사건이 며 매우 불순한 위기전환용사건 이라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문화예술인 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종교인 들로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 권》 퇴진투쟁을 가라앉히기 위 해 대중예술단체까지 탄압의 대 상으로 삼는것은 절대로 용납힐 수 없다고 단죄하면서 반《정 부》 투쟁대오에 용약 뛰여들 의 지를 피력하였다. 지금 남조선 의 각계층 인민들은 집권세력의 무지막지한 탄압이 통일운동단

체들과 진보적정당,정치인,시 민사회단체, 종교인에 이어 이 제는 진보적문화예술단체에로 까지 확대되고있는 사태에 격분 을 금치 못하면서 당국의 시대 착오적망동은 《정권》 몰락의 길로 이어질것이라고 경고하고 괴뢰당국의 내란음모사건조 작과 통합진보당강제해산책동,

진보예술단체에 대한 탄압책동 이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말살로 광범한 대중의 반《정부》진출 을 가로막고 파멸의 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한 술책이라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평이다.

《새누리당》 패들이 최근 《북이 반 〈정부〉 대남투쟁지 령》을 내리였다느니,이로 하 여 《대선불복이 활성화》 되고 있다느니 하고 아부재기를 치면 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민 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각계 단체들을 무턱대고 《종북》으

임명놀음

로 몰아대고있는것 도 급격히 고조되 고있는 반《정부》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위기를 수습하려는 유치한 망동이다. 괴뢰패당이 정보원대선개입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을 막아보려고 내란음모시 건조작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에 대한 파쑈적탄 압에 매달리였지만 그것은 부질 없는짓이였다.지난 11월 2 7일 남조선의 3 3개 시민사 회단체들은 진보민주세력에 대 한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이 임의 의 시각에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로 확대될수 있다고 하면서 민 주수호 통합진보당강제해산반 대 범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한데 이어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을 선포하였다. 이 사실은 보수 패당의 발악적인 탄압책동에도 불구하고 반 《정부》 투쟁은 더 욱 고조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 다. 오늘 남조선에서 반역 《정 권》 퇴진은 하나의 시대적구호 로 되고있으며 정국은 6월인민 항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괴뢰들은 현 사태를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괴뢰보수패당이 인민들의 목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모략과 파쑈탄압에 명줄을 걸며 진보세 력말살책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그것은 저들자신의 비참한 파멸 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윤 남

#### 권 자 퇴 진 을 주 장 투 쟁 확 대 를

남조선의 《정보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수호 광주시국회 의》가 4일 광주에서 집회를 가지고 괴뢰집권자의 퇴진을 위한 투쟁을 확대할것을 주장 하였다.

근 《분렬과 갈등 조장하는 박

근혜의 대결정치》라는 제목의

관회의라는데서 《혼란과 분렬

을 야기하는 행동》이니 뭐니 하

며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

단의 시국미사에 대한 탄압기도

시국미사관련자들을 묵과하

를 드러낸데 대해 언급하였다.

글은 박근혜가 이날 수석비서

글을 실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각계층 이 선거부정행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정보원개혁을 요구 하여 수십차레의 초불투쟁을 전 개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박근혜가 이를 무시함

으로써 종교계까지 나서서 사퇴 를 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현 집권자에 대해 《부정선 거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규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호전적이라고 하면서 박정

희가 걸핏하면 구속수사를 지시

하던 때를 련상시킨다고 비난하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

지금처럼 분렬과 대립이 격화

된데는 권력기관의 불법선거개

입사건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한

중을 협박하는것은 과거의 유산

남 조 선 신 문 이

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최 지 않겠다는 집권자의 발언은

하였다. 그들은 오늘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면서 박근혜퇴진을 위한 투쟁 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자고

정하고 구속될 각오로 결사항

전을 벌려야 할것이라고 강조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종교인들

비 난 박근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집권자의 발언을 기화로 《정 부》와 여당내에서 대결의식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여 본 질을 외면하며 무조건 짓누르고 굴레로 옭아매는것은 민주주의 적이라고 할수 없다고 글은 강 조하였다.

미군유지비증액강요에 굴복하는 당국을 규탄 남조선의 《불평등한 행정협 정개정 국민련대》를 비롯한 40여개의 단체들이 4일 서울 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

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 국이 남조선으로부터 걷어들인 미군유지비중 1조원이상을 불 법축적해놓고도 다음해 유지비 를 1조원이상으로 끌어올릴것 을 강요하고있다고 밝혔다.

강점 미군유지비를 늘일데 대한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는 괴뢰당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정 부》가 미군유지비를 늘이려 하 고있다고 하면서 미군이 불법축 적한 돈을 회수하지는 못할망정 증액요구를 거부하지 않는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경우 민중의 강 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라 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할 리유가 하나 더 첨부되였다 얼마전 괴뢰집권자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괴뢰집권자는 지난 11월 28일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국회》에서 괴뢰감사원장의 임 명동의안이 처리되자 그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괴뢰검찰총장, 보건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통 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임명해 버리였다. 놀라운것은 괴뢰집권자 가 여야대표들이 현 정국과 관련 하여 한창 회담을 진행하는 시각 에 마치 야당을 조롱하듯 기습적

으로 임명을 단행한것이다. 이로 하여 그 무슨 《소통과 화합의 정 치》를 떠들면서도 독선과 독주를 일삼으며 전횡을 부리는 현 괴뢰 집권자의 추악한 정체가 다시한번 낱낱이 드러났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괴뢰집권

자의 망동에 대해 《민중무시의

전형》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

고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들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

추기는 고사하고 도덕적으로도 썩을대로 썩은 부패무능한자들이 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괴뢰보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문형표 라는자는 개발연구원에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를 부정적으로 사 용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 온 갖 위법, 비도덕적행위에 이골이

을 받고있다. 그런데도 괴뢰집권자가 이런자 를 굳이 민생문제를 맡아보는 장

#### 역행하는 잠관 친 독선》, 《불통〈정권〉의 끝 판으로 내세웠으니 이 얼마나 어 처구니없는노릇인가.

을 보여주는것》, 《모든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고 주장하면 서 강력히 항의해나서고있다. 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에 괴 뢰집권자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한사코 강행한것은 민심 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극악한 정 치적폭거로서 그의 독재자적근성 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야당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괴

뢰집권자가 내세운 장관후보자들 을 반대해나선 리유가 있다. 그자 들은 하나같이 장판의 자질을 갖 를 검찰총장자리에 올려놓았다. 고 한결같이 비난하고있다. 난 구린내풍기는 인물이라는 평

괴뢰검찰총장 김진태라는자는

현 괴뢰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의 심복으로서 정보원선거개입 사건의 내막을 감추기 위해 필사 적으로 발악하는 보수패당에게 유리한자이다. 이로부터 괴뢰집 권자는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검 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 게 압력을 행사한 현 괴뢰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남조선 민심에는 귀를 틀어막고 김진태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검찰총장이 부정선거의 진실 을 덮으려는 청와대의 립장을 그대로 대변할가봐 우려된 다.》,《청와대 비서실장의 최 측근을 검찰총장으로 등용해 검 찰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라

이번에 임명된 괴뢰감사원장 도 보수패당과 한통속인것으로 하여 민심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고있다.

부패타락하고 속이 시꺼먼 이 런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 아 무슨짓을 하겠는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 집권자의 비호를 받아 장관벙거지를 쓴 이 자들은 그의 더러운 손발이 되여 인민들의 리익을 짓밟고 《유 신》독재부활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게 될것이다. 모략적이고 불법적인 선거개입망 동으로 권력을 강탈한 죄악이 말 짱 드러나 각계로부터 퇴진요구 를 받으며 극도의 위기에 몰린 현 집권자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다. 아무리 부정부패의혹을 산 같이 안고있는자들이라 할지라도 파쑈독재체제구축의 앞잡이노릇 을 충실히 할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 써먹어 무너져가는 《정 권》을 유지해보겠다는것이다.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 습하고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온갖 비렬한 정치깡패행위에 매 달리는 괴뢰보수패당에 대해 지 금 남조선 각계는 치를 떨면서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괴뢰집 권자의 흉계를 꿰뚫어본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은 인간쓰레기 들에 대한 장판임명을 당장 철 회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것 을 거부할 경우 전민중적인 투 쟁으로 맞서싸울것이라는 견결 한 의지를 표시하고있다.

이번에 괴뢰집권자가 파멸의 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해 장관임 명을 강행하였지만 오히려 그것 은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되고말았다.

보수패당의 정치적파멸은 그 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각 계의 반《정부》투쟁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는 속에 괴뢰집권자 와 《새누리당》의 지지률이 계 속 곤두박질하고있는것도 그것 을 말해준다. 남조선민심은 괴뢰 집권자의 이번 장판임명놀음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망사로 가고있다. 》 는것 을 보여준다고 경고하고있다. 인민들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있는 괴뢰보수패당은 아무리 독 재통치에 열을 올려도 위기에서 헤여날수 없다.

본사기자 김향미

생각하는 한쪼박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인간으로

서 초보적인 도덕적의무감이 있다면 그토록 비인

력사에 전무후무한 갖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것을 정당화하며 또다시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죄를 덧쌓는 반인륜적행위

국제법상, 인륜적면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

으로 떳떳하게 살자면 무엇보다먼저 그에 성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정의를 귀중히 여기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

일본에서 우익깡패들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

재일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사건, 총련

일군에 대한 살해사건, 총련건물에 대한 방화사

건 등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의 살벌한 분위기는

그야말로 간또대지진당시의 조선인학살만행을

우리 인민은 간또대지진때 조선인집단살륙만

행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일제의 잔악무도한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그에 대해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낼

손바닥으로 얼굴이나 가리운다고 하여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감출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일본반동들은 과거죄행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비

렬하게 놀아댈수록 죄만 더 커진다는것을 알아야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

하고 사죄하며 철저한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그렇지 않다가는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

에 빠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 <mark>좋을</mark>것이다.

나라-방굴라데슈

다 400만마대이상의 황마를 의 안정과 민족적단합, 사회경

라 명 성

이 나라는 국내적으로 나라

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

력하고있으며 녀성들의 사회정

치적지위를 높이기 위한 실질

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국

방력강화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

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자각하고 이 사업에 커다란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

을 실시하고있으며 주변나라

들,이슬람교나라들과의 관계를

오늘은 우리 나라와 방글라데

슈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

관심을 돌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다.

는 인류량심의 목소리이다.

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방불케 하고있다.

일념에 불타고있다.

한다.

지금 방글라데슈에서는 해마

생산하고있는데 이것은 세계총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

한다. 100여개 나라들에 황

마와 황마제품을 수출하고있

다. 해마다 전국외화총소득의

7 0 %를 황마제품이 차지하고

이 나라에서는 350여만명

의 인구가 황마재배업에 종사하

고있으며 210여만명의 인구

가 황마가공공업에, 1 0만명의

인원이 황마무역에 종사하고

황마를 많이 생산하는 방글라

데슈는 공업도 주로 황마를 가

있다.

있다.

이다.

####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천출명장

나 라 를 외국인들

의 벗들은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심을 표시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부위원장 겐나지 꿀리꼬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상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조선을 백 전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시였다.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 방식으로 정립하신 그이께서는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를 높이 모시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 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물리치고 자기의 자주권과 존 엄을 영예롭게 지키였으며 위 대한 나라로 위용을 펼쳐올수 있었다.

김정일동지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대표 자베드 안싸리는 인류자주위업 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

이딸리아잡지와 영국신문이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편 집하였다.

이딸리아인터네트잡지 《스 따또 에 뽀뗸짜》는 11월 26일 에 《사회주의조선에서 2013 년에 달성한 성과들》이라는 제 목의 글을 실었다.

잡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회 총서기가 최근 당외인사들과

의 좌담회에서 경제부문앞에 제

그는 올해에 당 제18차대

회정신을 착실히 관철하고 경

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

화함으로써 경제사회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였다고

2014년경제사업을 잘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

일본륙상《자위대》의 비밀정

보부대인 륙상막료감부운용지

원 및 정보부별반이 랭전시기부

터 존재해있은 사실이 최근에

11월 27일 일본 교도통신은

로씨야전략폭격기 《Ty·

95MC》 2대가 최근 태평양의

중립수역상공에서 순찰비행을

우크라인까공군기지에서 리

륙한 전략폭격기들은 약 13시

소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문제가

2일 도교전력회사는 발전소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로 씨 야 전 략 폭 격 기

밝혔다.

폭로되였다.

진행하였다.

간동안 비행하였다.

시된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투로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주체의 태양으 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 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 하여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진정 그이는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도리사회 성원 느. 사란토야는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조선인민과 함께 계신다 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하여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로고에 의해 조선의 국력은 백방으로 강화되 였다. 조선이 엄혹한 난관속에 서도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있은 것은 그이의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딸 리 아 잡 지 와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

할수 있었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의 진두에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를 높이 모시여 김정일동지의 사상 과 위업은 빛나게 계승완성될것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은 우 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속에 서 뜨겁게 분출되였다.

뛰르끼예로동당대표단 단장 다샤르 카라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령도 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 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의 군대

와 인민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 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한길로 억세게 나 강조하였다. 아가고있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엠. 자한기르 칸은 선군 정치는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따라배워야 할 정치 방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 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강성 번영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걸출한 령장의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수호전에 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며 강성국 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올수 있 었다.

조선의 자랑찬 현실은 선군정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선군 정치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으로 공인하고 있으며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

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고있다.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단 장 통반 쌩아펀은 다음과 같이

영국 신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에 서 승리만을 떨쳐왔다.

이것은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 으로 강화한데 있다. 력사는 총대가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정일령도자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주체조선의 승리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다.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마르씨아 데 깜뽀스 뻬레이라는

조선은 위대한 나라이라고 하면 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조선에 선군이라는 만능의 보검이 있기때문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을 군사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

그이의 선군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 완성되고있다.

위대한 수령,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어 조선은 승리의 력 사만을 창조할것이다.

여 렬거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워커》 11월 22일부는 창립 60돐을 맞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소개하면서 대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종합적인 연극, 영화예술인양성기지로 전 변된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 였다.

## 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면서 조선 정부는 2012년에 주체의 사회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로선들을 제시하였으며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습근평총서기 경제부문 과업에 대해 언급,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다그쳐야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최근 에

그는 지시에서 에이즈예방치

료사업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과

관계되는 당과 정부의 응당한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치료를 결합하며 법에 따라

으로 정보활동을 벌려왔다고 밝

략어)라고 불리운 이 별반의 해

비행과정에 승조원들은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방위

판정을 하기가 어려운 수역

상공에서의 비행술을 련마

5일 로씨야국방성이 이에 대

β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L당 110만Bq의 높은 농도로 검

출되였다고 밝혔다.

즉시에 대응하였다.

순찰비행 진행

이즈예방치료사업과 관련하여

한다고 강조하였다.

\*

책임이라고 밝혔다.

혔다.

하였다.

해 밝혔다.

본부장 등 여러 판계자들의 증 외전개는 랭전시기부터 시작되

일본에서 의연 심각한 방사능오염

일본에서 후꾸시마원자력발전 의 동쪽에 있는 판측용우물에서

중요지시를 하달하였다.

에이즈예방치료사업을 잘할데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지역의

우

조선인민은 2013년에도 사 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은 서방의 비방선전과는 상 반되는것이다.

잡지는 계속하여 올해에 우리

대해 강조

과학적으로 예방치료를 진행

하는 정책을 견지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그는 감염자들과

환자들에게 제때에 효과적인

치료와 방조를 제공하여 그들

이 사회주의대가정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인민

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을

가지고 에이즈예방치료사업을

확고히 틀어쥐여야 한다고 그는

조선에 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

로 하였고 최근에는 로씨야와

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히

필리핀의 다바오 오리엔탈주

소재지에서 4일 리히터척도로

진앙은 마띠로부터 동남쪽

으로 57km 떨어진 곳에 있

인도네시아 말루꾸주의 주변

진원은 바다물밑 40km 되는

【조선중앙통신】

해역에서 1일 리히터척도로

6. 7의 지진이 일어났다.

5. 7의 지진이 일어났다.

X

언급하였다.

비밀정보부대존재사실 폭로

언을 인용하여 이 별반이 단독 였으며 주로 이전 쏘련과 중국.

통신은 《DIT》(방위정보팀의 남조선, 뽈스까 등에서 활동하

었다.

곳에 있었다.

려운

나라에서 은하과학자거리, 문수 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등 인 민의 복리와 생활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 및 대상들이 훌 륭히 완공되였으며 수많은 과학 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의 제의에 따라 3 일 이 나라 국회가 이전 대통령 챠베스가 작성한 사회주의건설 강령을 법률로 선포하였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은 각급 정권기관들이 볼리바르혁 명의 지도자의 강령을 의무적으 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화 한다고 밝혔다.

#### 미국의 안보협정체결 배격 지역에 부정적인 후과가 초래될

하였다.

베 네 수 엘 라 국 회

사회주의건설강령을 법률로 선포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아프 가니스탄과 안보협정을 체 결하려는데 대해 규탄배격 하였다.

그는 안보협정이 체결된다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

서 5일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을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

시위에는 해버르 파크툰크와

주의 정부관리들과 의회의원들

참가자들은 반미구호들을 웨

치며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무인기공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의 워싱톤과 뉴욕 등

100개의 도시들에서 5일 속성

음식생산부문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들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의 부

당한 경제정책으로 자기들의

└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다.

**찰가하였다**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참가하였다.

그것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정 부와 인민에게 그 어떤 리익도 가져다주지 못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데 대해 비난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강력히 요구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5일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을 반대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금빛섬유》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황마는 해마다 3월이 되면

심기 시작하며 4개월동안 가꾸 어 3m이상 자라게 되면 수확 한다.

공하는 섬유공업으로 되여 은지 4 0돐이 되는 날이다. 협 조

있다. 여래 나 라 들 6건의 협정을 맺었다.

### 김 철 룡

중국과 아제르바이쟌이 5일 경제, 기술분야에서 쌍무협조판 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협정을

래도부러 바로가져야

얼마전 일본에서 간또대지진당시 조선사람들

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배후에 일본정부가 있다는

것을 립증하는 문서가 공개되였다. 여기에는 간

또대지진당시 수십명의 조선사람들의 피살경위

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는데 그중에는 한 녀성이

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헌병이

조선인학살에 가담하였다는 자료는 그 당시의 대

학살만행이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밑에 조직

적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 론박할수 없

선인학살만행과 관련하여 헌병과 군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자경단》과 같

은 민간단체들에 넘겨씌웠고 최근에는 이를 교과

력사에는 수많은 자연적인 재난이 기록되여있

지만 과거 일본정부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민

심의 반정부기운을 눅잦히기 위해 타민족말살을

계획하고 극악한 수법으로 인간살륙을 감행한 범

간또대지진때 재일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감행

한 집단적살륙만행은 일제야말로 인간증오와 민

족배타주의사상, 야만성이 체질화된 파쑈교형

리, 사람잡이를 유희, 도락으로 삼는 살인악마,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은 그때로부터 90년이 지난 오늘까

저지른 파오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는것은 사람들호상간, 나라들호상간에 지켜야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청산에 대해 아

피해입은 인민들의 마음속상처를 조금이나마

《황금빛섬유》의

무런 사죄와 배상도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

지도 그 진상을 뒤집고있을뿐아니라 그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있다.

할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아시아의 남부 인디아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있는 방글라 데슈는 세계적인 황마생산 및

수출국이다. 황마는 생산량이

높고 질이 매우 좋아 이 나라 인

민들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1.6m이상 되는 부드럽고 질

긴 이 섬유오리들은 광택이 나

는데 얼핏 보면 마치 금발머리

처럼 보이기때문에 《황금빛섬

유》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널리

그리하여 이 나라를 일명《황

고있다.

서에 그대로 반영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지난 시기 일본정부는 간또대지진때 감행된 조

일본헌병에게 총살당한 기록도 들어있다.

는 증거이다.

죄자들은 없다.

체결하였다. 같은 날 필리핀과 먄마는 량안전, 재생에네르기, 공보 등 에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보다 앞서 4일 수단과 에티 오피아는 두 나라 국격지연에

**먇마대통령의 필리핀방문과정**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하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였다.

적으로 널리 공인되고있는 플라

즈미드역전유전학과 유전자재

집합기술이 리용되였다. 왁찐은

세계적판도에서 H7N9형조류독

감비루스의 전파를 막는데 이바

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 H7N9 형 조 류 독 감 왁 찐 개 발 연구과정에 왁찐개발에 세계

중국의 연구집단이 최근 H7N9형조류독감왁찐을 개발하

연구집단은 H7N9형조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에게서 비 루스를 성과적으로 분리해낸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심 각 한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되고있다. 5일 미로동성은 조사

업 위 기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

호

의 지난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9만 8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

# 오늘의 세계

최근 중미사이에 전략적모순

이 격화되고있다. 지난 11월 미국은 《미중경 제안보검토위원회》보고서라 는것을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아시아태평 양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에 도전하고있다고 밝혔다. 보고 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이 급속히 확대되고 현대화되 였으며 괌도의 미군사기지에 대한 타격능력까지 갖추었다 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중국 이 2020년까지 30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며 그중 60척은 대륙간탄도미 싸일과 순항미싸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이 자국을 대상으로 광범 위한 싸이버정보수집활동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기 위해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의 군사력강화와 함께 자국국방 비의 강제삭감에 의해 저들의 군사적힘이 저하되는데 따라 지 역에서의 세력균형은 변화되고

있으며 자국의 아시아태평양중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 시전략이 초래하는 억제효과도 약해지고있다고 하였다. 중국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바쁘게 중국은 자국에 의해 아시아태 평양지역의 군사적균형이 파 괴된다는 미국회의 주장을 랭 전식사고방식이라고 규탄하 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 위원 회가 랭전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호상 신뢰를 강화할수 있는 일 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자국의 국방정책은 방 어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 한 중요한 힘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서 중미사이의 모순이 지속적으 로 존재하고있으며 날로 격화되 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걸고 든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미국방성은 20 1 3년도 《중국군사 및 안전태 세발전보고서》라는데서도 중국 의 《군사적위협》등 틀에 박힌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중국을

비난해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담화를 발 표하여 미국방성의 보고서를 단 호히 배격하였다. 담화는 미국 이 자국의 국방 및 군대건설에 으며 미국방성의 보고서는 흑백 을 전도하고 국제여론을 오도한 것으로서 극히 책임성이 없는것 이라고 단죄하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발표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보 고서를 놓고 두 나라사이의 대 립과 마찰이 격화되였다. 당시 중국외교부는 미국의 보고서가 랭전시대를 련상시킨다고 하면 서 강하게 규탄하였다.

이것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번에 또다시 중국의 군사력을 놓고 《군사적균형의 파괴》니 뭐니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어 대고있다.

하다면 오늘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강화를 그 무슨 《위협》설 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진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 여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강화하 려는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 한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중시전 략을 내놓고 이 지역에 대한 군 사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는것 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어 떻게 하나 이 지역에서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군 사적우위를 차지하려고 모지름 을 쓰고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군

리해 관계의 사력강화를 위협으로 몰아 저 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하고

> 보고서도 그의 연장이라고 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책동도 마찬가지이다.

있다.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얼마전 미국회 상원외교위 원회는 대만에 대한 4척의 미싸일호위함을 판매하거나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무 기판매의안을 심의하고 채택 하였다.

중국은 미국회의 유판위원 회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관련되는 의안을 심의, 채택한 데 대해 견결한 반대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언명하였 다. 그러면서 미국회의 일부 사람들이 랭전식사유를 버리 고 하나의 중국정책과 중미 3개 공동콤뮤니케를 성실히 지키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와 관련한 그 어떤 의안도 채 택하는것을 중지할것을 요구

여론들은 미국이 아시아태평 양중시전략을 버리지 않고 지역 에서 군사적지배권을 유지강화 하려고 꾀하는 조건에서 전략적 리해관계를 둘러싼 중미사이의 모순이 앞으로 계속될것으로 평하고있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 위 NΙ

알려져있다.

있다.

N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시위 에는 수백명의 교원들이 참가하 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교육부문에 일자리축감사태를 빚어내게 될 그릇된 조치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키스탄에서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을 반대하여 집회

#### 자료를 인용하여 11월 30일까지 법 받 비밀

최근 일본정부가 비밀을 루설 한 공무원 등에 대한 형벌을 강 화하기로 한 특정비밀보호법안 심의에 착수하였다. 일본수상 아베는 특정비밀보호법안성립 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규챂배

그러나 현재 법안성립은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있는것과 관련 된다. 실례로 이 법안에서는 특정 비밀은 각 행정기관의 책임자

들이 지정하게 되여있으나 그 판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 증하는 체계는 없다고 한다. 이 것은 사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공개할수 없는 정보 로 은페할수도 있게 된다는것 을 말해준다.

이로 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특정비밀을 취급하는 관계자가 위축되여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 하게 될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바빠난 정부관리들이 법안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도 및 취재의 자 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간 단치 않다.

그들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보도와 취재의 자유가 담보되 였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 하였다. 일본주재 외국특파원협회는

이 법안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

하는 악법》이라고 하면서 철회 또는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인권단체도 일본의 특 정비밀보호법안을 수정할것 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

고 만일 수정되지 않으면 국 회가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일본의 각 사회단체가 떨쳐나서고있다. 지 난 10월 일본 도꾜의 수상관 저앞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안

을 반대하는 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절대반대!》, 《무엇을 위 한 법안인가?》등의 구호를 웨 치며 법안을 페기할것을 요구하 였다. 일본변호사련합회는 기자회 견을 가지고 특정비밀보호법안

을 반대하여 《루설방지는 엄벌 을 가하는것이 아니라 정보관리 체계를 적절하게 만드는것으로 실현해야 한다. 》는 의견서를 제 출하였다. 현재 일본 각지의 시민운동단

체 등이 련이어 이 법안채택을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문을 발표 하고있는 형편이다.

지난 11월말 도꾜에서는

구하는 녀성들이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번 시위를 발기한 한 음악 평론가는 《악마같은 법안이다. 무엇이 비밀인지를 그 당시의 권력자가 비밀리에 결정할수 있게 된다는것이 언론인으로서 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두 렵다. 》고 밝혔다.

자민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울려나오고있다. 자민당 중의원 의원인 이전 행정개혁담당상은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현 국회 에서 법안을 성립시키려 하는 아베내각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 하였다. 그는 자민당 총무회도 중에 퇴장하는것으로 법안승인 을 반대해나섰다.

야당에서의 비난도 간단치 않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둘 러싸고 자민당, 공명당과 일본 유신회, 모두의 당이 수정협의 에서 합의한것과 관련하여 민 주당은 국회내에서의 대응을 협의하였다.

일본민주당 대표는 참의원의 원총회에서 참의원심의에 들어 간 특정비밀보호법안의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천하의 악법이 중의원을 통과 하였다. 이는 엄청난 폭거이다. 참의원에서 페지시키자. 》고 말 하였다.

일본민주당 참의원간사장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의 폐안을 요 가두연설에서 《비밀보호의 범위 가 무제한 확대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가 제한 되고만다. 》고 하면서 위기감을 표시하였다.

실시한 전국전화여론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성립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되 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 답한 사람이 62.9%에 달하 였다고 전하였다. 지금 이 법안채택문제와 관련

얼마전 교도통신은 이틀동안

하여 아베내각지지률은 이전 조사에 비해 2.8% 내려 갔다.

이것은 아베내각이 채택하려 고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국 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독선적인 법안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가. 국민들의 초보적인 자유마 저 박탈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기 도는 해외팽창책동이 극도에 이 르고있는 속에서 나온것으로서 사람들이 당국의 계획이나 움직 임을 알수 없게 만들어 군국주 의를 조장시키고 파쑈통치제도 를 수립하려고 발악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일본집권세력이 신중하게 처신 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곤경에 빠 셔들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신경섭

□─311924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